

수로왕 탄생신화의 심리학적 해석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Birth-Myth of King Suro - from the viewpoint of analytical psychology

저자 (Authors)	박현순 Hyun Soon Park
출처 (Source)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 2005.3, 75-95(21 page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24(1) , 2005.3, 75-95(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심리학회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8009
APA Style	박현순 (2005). 수로왕 탄생신화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75-9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8 13:2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수로왕 탄생신화의 심리학적 해석 -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박 현 순[†]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본고는 수로왕 탄생신화에 대한 분석으로 신화란 인간정신의 소산이며 인간정신의 심층에 있는 집단무의식의 내용물이 투사된 것이라는 분석심리학적인 전제를 기초로 하였다. 본문에서는 신화의 핵심 주제인 신화소와 신화내용의 전개를 집단무의식의 원형과 리비도의 변환 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상징에 대한 확충과 유화비교를 통한 해석학적 방법으로 신화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개인 내면의 정신현상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았다. 분석심리학에서 신화를 분석하는 목적은 정신의 심층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무의식에 대한 통찰의 한 방안이며, 이를 통해 의식이 지향하는 일방성에서 벗어나 전체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집단무의식, 신화소, 원형, 리비도의 변환

[†] 교신저자 : 박 현 순,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121-742) 서울 마포구 신수동 1번지
E-mail : alchem@sogang.ac.kr

들어가는 말

세상의 창조나 개국시조 그리고 영웅에 대한 신화를 지니지 않은 민족은 드물다. 그러나 신화를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고대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여러 형태로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는 문명화되지 않은 부족의 집단의레나 여러 민족의 신화 속에서 수 백 년 이상 된 상징들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본다. 현대인에게 신화는 한낱 옛날 얘기에 불과할지 모르나 역설적으로 신화는 합리적인 과학문명이 부여하는 의식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상징이 일상생활에서 큰 몫을 차지했던 원시인의 심성과 문명화됨으로써 상징과 거리가 멀어진 현대인의 심성 사이에는 커다란 정신사적인 간극이 있어 보인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사유방식을 가지고 있다. 흔히 신화적인 사고로 불리는 원시심성의 사고형태는 심상과 환상을 매개로 하며 방향성이 없다는 점에서 무의식의 꿈의 사유방식과 동일하다. 반면에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식적인 사고는 방향이 뚜렷한 합리적인 사고로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형태이다(Jung, 1952). 의식이 분화, 발달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사고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신화적인 사고는 열등한 사고로 간주되었으며, 자연히 상징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다. 하지만 현대에는 현대의 신화가 있다. 우주로부터 메시지를 전해오는 UFO가 있고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슈퍼맨과 007같은 영웅들이 있으며, 신데렐라의 행운을 붙잡은 여배우나 가슴속에

파괴적인 분노의 신을 모시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신화적인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현대의 신화는 삶 속에 융화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시심성의 신화와 다르다. 신화적인 사유가 제 가치를 지니고 있던 시대에는 신화가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원리로서 집단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신화적인 사유방식은 의식적인 정신을 그 뿌리인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합리성과 분별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하나였던 전체정신(psychic totality)으로서 우리가 지닌 본래의 심성이다. 신화에 담긴 상징을 통해 우리는 의식 저 너머에 있는 무의식적인 심성과 연결되며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합친 정신의 전체성을 경험한다. 의식이 지향하는 일방성에서 벗어나 정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분열된 마음의 치유이자 자기실현의 길이기도 하다. 신화의 상징적인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인간의 무의식을 전제로 하는 심층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처음 신화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프로이트였다. 그는 꿈과 신화의 주제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이디푸스 신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 나아가 신화뿐만 아니라 종교와 예술 등 문화적인 산물 역시 근친상간에 대한 무의식적인 유아기적 소망을 담고 있는 주제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 토렘과 터부 말미에 모든 노이로제의 핵심인 외디푸스 콤플렉스 안에 종교, 도덕, 사회 및 예술의 시초가 동시에 들어 있으며, 이 모든 문제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냐 라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관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신도 놀랍다고 한 바가 있다. 물론 프로이트는 많은 꿈들이 원시인의 관념과 신화, 제의와 비슷한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그러한 연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를 가리켜 고대적 잔재(archaic remnants)라 부르며 먼 옛날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심리적 요소들이 있음을 시사하였지만 신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신화가 그 사회의 집단적인 외디프스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에 융은 모든 인간에게 신화를 생산하는 보편적인 정신층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융이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던 무의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인 무의식으로 구분한다. 개인적인 무의식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차원의 무의식이며,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관점은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집단적인 무의식은 융의 분석심리학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시공을 초월해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공통적인 정신층이 있음을 가정하는 개념이다.

집단무의식은 의식의 뿌리이자 전체정신의 근원이다. 집단무의식에는 특정한 경험 내용을 산출할 수 있는 형식, 즉 본능적인 행동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원형(原型, archetype)들이 있다. 원형은 보편적인 신화의 주제, 즉 신화소(神話素)와 비슷한 개념이며 융이 만든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융보다 훨씬 앞서 이 같은 사고나 관념을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플라톤의 상위 이데아 개념이나 원상(原像), 레비브뤼의 집단표상(representation collectives) 그리고 아돌프 바스티안의 원초적 사고라는 개념이 융의 원형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Jung,

1938). 환언하면 집단무의식의 원형은 꿈이나 환상, 예술, 신화를 형성하는 정신의 심층적인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융 심리학에서는 신화를 집단의 유아기적인 소망을 담은 산물로 보지 않고 인간 정신의 심층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표상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의 관점은 신화를 형성하는 정신적 요소의 내용과 그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다. 즉 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이 인간정신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 그와 같은 정신 현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분석심리학적 신화 분석이다(이유경, 2001).

한국의 신화는 천지개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신화와 국가의 성립과 민족 시조의 탄생과 치적을 담고 있는 개국시조신화 그리고 민간에 전승되는 신화적인 이야기인 민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창세신화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드물어 아쉽지만 다행히 구전으로 전해오는 무가(巫歌)에 창세신화가 들어있다. 1930년대 손진태와 일본인 학자 추엽(秋葉)에 의해 북한지방의 ‘창세가’와 경기지방의 ‘시루말’이 채록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임석재와 장주근 등이 채록한 제주지방의 창세무가 ‘천지왕본풀이’ 등이 있다. 이해 비해 수많은 국가가 명멸했던 만큼 국가의 성립과 시조에 대한 신화는 거의 모든 고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비롯해 주몽, 혁거세, 탈해, 동명왕, 김알지, 수로왕 등의 탄생과 치적에 관한 이야기 등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민간 신화는 임석재(1992)가 평생에 걸쳐 채록한 민담을 지역별로 묶어 12권의 전집으로 집대성하여 만년의 역작으로 내놓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화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왕 탄생신화로 우리민족이 지니고 있는 개국시조 신화 중의 하나이다. 창세신화나 민담과 달리 개국시조 신화는 통상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가치관이나 통치원리가 신화 속에 의도적으로 가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화의 내용도 현실적인 내용과 신화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신화를 분석할 때는 역사적인 현실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틀은 일차적으로 가락국에 대한 역사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외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 다음 훼손되지 않은 내용에 국한해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소(神話素, mythologem), 심리학적으로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을 중심으로 그 심상이 지닌 상징성을 확충(擴充, amplification)과 유화비교를 통해 원형상이 지닌 그 자체의 의미를 밝혀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상과 신화내용의 전개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해석학적 방법으로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문헌은 이병도(1962)와 이재호(2000)의 삼국유사 번역본(三國遺事 第 2卷 奇異編 鷲洛國記)을 참고로 하였다.

문헌고찰

신화의 근원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지만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신화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신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태고적 현실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어둠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경이로운 순간의 체험이나 신비한 자연 현상에 대한 오래된 경험들이 누적된 전승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신화적인 전승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를 담고 있으며 사회를 태초의 근원적인 상태로 회귀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른 견해는 케레니로 대표되는 입장인데 신화란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인 신화소를 움직여 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움직임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화란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변화하며 생성되어가는 살아있는 과정이다(Kerenyi, 1978). 음은 케레니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신화적인 근본주의(mythological fundamentalism)라는 개념을 덧붙이고 있다. 신화적인 근본주의란 신화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여 정신의 밑바닥에 있는 내적인 근원과 만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절대적인 기원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신화를 자율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변모해 가는 살아있는 과정으로 보되, 이 과정을 개인의 정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표현으로 본다는 점에서 케레니와 다르다. 따라서 분석심리학에서는 개인과 집단 구성원들에게 신화적인 상징이 지니고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중요시한다(Jung & Kerenyi, 1978). 폰 프란츠는 신화나 민담의 근원을 이루는 내용이 의식에 뛰어든 집단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의 표현으로 보았다. 즉 신화나 민담은 원형적인 그릇에 담겨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며, 이것은 의식을 그 뿌리인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von Franz, 1970).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국신화나 시조

신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가치나 태도가 반영될 수 있고, 특히 개국신화의 경우 통치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의식적으로 가미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심리학적 분석 대상은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이 없는 신화적인 내용에 국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야국의 역사기록과 신화학 분야의 견해, 그리고 고대시문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락국기를 보는 관점은 분야마다 다르다. 역사학계에서는가락국기가 가락의 역사를 고찰하는 유일한 자료지만 대부분 믿기 어려운 전설적인 내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자들은가락국의 시조라고 하는 수로와 그 배우자에 관한 기록이 너무도 황탄하여 수로가 과연 실재 인물인가, 실재 인물이라면 전설처럼 가락의 최초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수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가락국기가 단순한 역사기록이 아니라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밝혀지지 않은 고대사가 가야사라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지만 수로왕의 탄생과 관련된 역사학계의 추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지 동이전의 변진조에 따르면 북변한이 남하하여 낙동강 남서해안에 변진 12국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변한(변진)의 구사국이 가사국에서 가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이기백과 이기동 1982; 이병도, 1962; 천관우, 1978). 이와 함께 수로왕의 강림과 158년간의 통치기를 구사국의 창업기로 볼 수 있으며, 수로왕의 탄생년도인 임인년(AD 42년)은 두 갑자 뒤의 임인년인 AD 162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

다(천관우, 1978). 또한가락국기에는 변진 12국이 아닌 6가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변진 12국이 신라와 백제에 잠식되고 남은 것이 6가야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고(이기백 등, 1982), 성읍 국가로서 본가야의 성립은 수로왕이 대가야를 개국한 시점보다 빠르고 수로왕의 탄생신화는 대가야가 6가야 연맹의 맹주로 부각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병도, 1962). 종합해 보면가락국기는 여러 부족국가가 보다 큰 국가로 바뀌거나 새로운 국가로 창업되는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화학 분야에서는가락국기를 당대의 전승이라기보다 여러 대에 걸쳐 누적된 전승이 가미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김헌선(1998)은 수로왕 탄생신화가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토착종교와 충돌을 빚던 시대 상황에서 생겨난 신화로 보고, 신화내용 중 수로왕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 신화적인 훼손 없이 탄생신화의 골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 분야에서는가락국기를 신화보다는 하나의 제의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가락국기 중 구지를 신맛이 노래나 원시주문으로 보고 이것이 이후 굿의 전형이 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김열규, 1966; 정상균, 1984), 농사철을 앞두고 대지의 생산성을 비는 舞蹈歌라는 연구 등이 있다(박지홍, 1997).

이상을 토대로 보면 수로왕 탄생신화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 부족국가 중 한 부족국가가 맹주로 부상하던 시기이며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로왕과 허황옥이라는 인물과 통치기간은 역사적인 실재인물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바가락국기는 탄생신화의 골격 위

에 누대에 걸친 전승이 덧입혀진 내용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화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수로왕의 탄생부분과 신맞이 노래 구지가에 초점을 두고 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수로(首露)왕 탄생신화와 구지가(龜旨歌)

천지가 개벽한 후로 이 지방에는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 이 때 구간(九竿)이 있어 백성을 통솔했는데, 대개 1만 호에 7만 5천명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거의 스스로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3월 上巳日에 그들이 사는 곳의 북쪽 구지. 이것은 산 봉우리의 이름인데 거북이 엮드린 형상과 같으므로 구지라 했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간과 마을 사람들 2,3백 명이 거기에 모이니, 사람 소리 같기는 한데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만 났다. “여기 누가 있느냐?” 구간들은 대답했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냐?” “여기는 구지입니다.” 또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 하셨다. 그래서 내려왔다. 너희들은 이 산 꼭대기를 파고 흙을 집으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라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 그리하면 곧 하늘에서 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그 말을 따라 마을 사람과 함께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얼마 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니,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는 것이었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단이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는데 해처럼 둥글었다. 여러 사람은 모두 놀랍기도 하고 기뻐서 함께 수 없이 절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기에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탑 위에 두고 무리들은 모두 흠뻑 젖었다.

12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금합을 열어보니 알 여섯 개가 어린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덩실하니 컸으며, 이내 평상에 앉았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삼가 절을 올리고 극진히 공경했다.

이하 가락국기의 내용은 이렇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는 십 수 일만에 키가 9척이나 되었으며 범상치 않은 용모를 지녔고,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은 수로(首露)라 했다. 왕위에 오른 수로는 탈해의 도전을 받아 물리치고, 아유타국 공주 허 황옥을 왕비로 맞는다. 허비는 부모의 꿈에 상제가 현몽하여 딸을 수로왕의 비로 보내라는 천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수로왕에게 온다. 허비는 수로왕과 결연을 맺은 뒤 가락국의 문물을 정비한다. 이후 허비가 먼저 죽고 수로왕도 죽는데, 수로왕이 죽은 뒤 수로왕 묘가 영검을 발휘하며 수로왕이 허비를 맞이하던 놀이가 아직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분석심리학적 해석

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은 신화가 개인 내면의 심층적인 정신과정을 표상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신화 분석은 신

화소를 정신의 구성요소와 연관시켜 해석한다. 신화를 형성하는 정신적 요소는 바로 집단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형들이다. 원형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은 전체 정신의 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상징을 산출한다. 상징은 무의식의 사유방식을 통해 산출되는데 융이 신화적인 사고라고 부른 무의식의 사유방식은 언어가 아닌 심상을 매개로 한다. 시적인 이미지나 환상, 혹은 몽상적인 사유가 그 예에 해당할 것이다. 상징의 산출과정은 예술창조 과정에 비견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정신의 기저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충동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상이 형성되면서 그 내용이 채워진다(Jung, 1919). 그러면 이제부터 수로왕 신화의 틀에 담긴 내용, 즉 신화적 모티프인 원형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확충하여 신화소 자체가 지닌 상징성과 그것이 개인 내면의 정신현상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보기로 한다.

부락국가의 성장

가락국기는 천지개벽을 넘어선 시점에서 시작된다. 천지개벽은 되었으며 나라 이름이 없고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 함은 아직 이름과 체제를 갖추지 않은 나라, 통치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성들의 생활 또한 자연 속에서 거의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천지개벽은 어둠의 혼돈 속에서 세상이 열리는 과정이다. 심리학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무의식의 혼돈 상태에서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가락국기의 서두는 의식의 탄생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왕으로 대표될만한 강력한 의식성이 없는 미미하게 분화된 의식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정신 내면의 현상으로 비

추어 보면 마치 원시인이나 어린이의 의식성처럼 자주 끊어지고 쉽게 흐트러지는 미약한 의식상태를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가락국기의 시대배경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시점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지배적인 태도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닥친 상황이다. 가락국기가 불교라는 외래문명의 도래로 인한 토착문명과 충돌을 함축하고 있는 자료(김현선, 1998)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첫째,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시점이 가야시대였고 둘째, 가락국기 내에 아유타국(지금의 인도지방) 공주인 허황옥이 수로왕의 배필로 들어온 뒤 가락국의 문물이 정비되고 평화로운 통치가 자리 잡았다는 내용이 있으며 셋째, 수로왕이 등극한 뒤 육지의 독룡을 제압할 수 없어 부처에게 설법을 청했다는 내용(三國遺事 塔像 第 4篇, 魚山佛影條 稽首請佛說法)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수로왕 탄생신화와 불교의 유입 시기가 맞물려 있음을 뒷받침한다. 외래 문명이 도래하여 토착문명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통치질서를 필요로 하는 시대배경은 구성원 모두에게 집단적인 의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통상 개벽신화가 거대한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싹트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듯이 가락국기 서두에 묘사된 백성들의 생활상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의식의 탄생은 이루어졌지만 전체 인격을 통솔할 왕과 같은 지배적인 새로운 의식성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왕의 강림 기원

시간과 장소

수로왕은 삼월 상사일에 하늘의 명을 전하며 자신의 탄생을 예시한다. 삼월 상사일은 삼

짓날인데, 이 날 사람들이 액을 덜기 위해 목욕하고 물가에서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었기에 계육일(溪浴日)이라고도 했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계육일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술로 흥겨운 잔치를 벌이던 봄맞이 관습이 있었다.

고대로부터 모든 종족의 봄 축제는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일깨우려는 시끌벅적한 본능의 발산과 더불어 어둠 속에 잠든 신을 깨우며 찬미하는 축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봄 의례는 언 땅에서 죽음을 실어내고 대지에 깃든 생명을 일깨워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오병남과 김현희, 1996; Frazer, 1978). 상사일은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못 생명의 씨앗을 땅속에 묻고 있는 겨울은 무의식 자체의 성질을 표상하는 상징이며, 씨앗이 움트는 것은 무의식적인 내용물들이 우리가 사는 땅 위로, 즉 의식의 세계로 부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 역시 이에 상응하는 봄이라는 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봄 축제가 보통 부족이나 작은 공동체 단위로 마을 한가운데서 행해졌던 것과 달리 수로왕의 탄생은 특별한 장소인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산봉우리에서 이루어진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이나 지하에 있는 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 땅에 있는 깊은 구덩이나 구멍은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고 산 정상은 신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로마인들은 집을 지을 때 특정한 영혼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genius loci*)에 그 장소의 영을 나타내는 작은 조각물을 배치하기도 하였다(박현순과 이창인, 2004; Boa, 1994). 우리 민속도 예외는 아니다. 동네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수호신을 숭상하던 동계에서는 다양한 신들께 제를 올리는데 신마다 모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 가령 산신은 마을 뒷산중턱에 있는 산신각에 모시고, 서낭신은 마을 어귀에 서낭당을 짓고 그 옆에 장승이나 솟대를 세워 모시고, 동신이 깃든 신성한 나무나 바위 옆에는 당집을 따로 지어 신을 모셨다. 이처럼 인간은 영혼을 풍경 속에 투사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완벽한 영혼의 지형이 있고,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정신이 전 풍경 속에 퍼져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오늘날 각 민족의 성지나 문명발상지의 지형학적인 특징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쪽 구지봉은 신성한 장소이다. 북쪽은 팔괘에서 땅에 해당하는 음의 자리로서 여성, 대지, 무의식과 관련된다. 또한 거북의 머리를 잉태하고 있는 어미 거북 형상의 봉우리로 모성성의 상징적인 표상으로 손색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지봉은 수로왕이라는 새로운 의식성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무의식 그 자체를 나타내며, 지모신(地母神)으로 표상되는 무의식의 모성 원형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목소리

구지봉에서 들리는 수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고대 시문학 연구에서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부족의 의식을 주관하는 여족장이나 무당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족장이나 무당은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이다. 신화와 민담에서 신의 뜻을 전하는 목소리는 흔하다. 또한 깊은 종교적 체험이나 보통 사람들의 꿈속에서도 꿈꾼 이를 안내하는 지혜로운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박현순, 2003). 성서에는 약속, 경고나 계시, 저주, 인도,

명령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100회 이상 등장한다. 삼국유사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거지 여인을 해산을 도운 황룡사의 중 정수를 국사로 봉하라는 하늘의 명이 있어 애장왕이 사실을 확인한 후 국사로 봉했다는 기록(三國遺事 5卷, 感通偏, 正秀師求水女條)이나 이대에 걸쳐 부모를 지극히 봉양한 대성의 출생을 알린 하늘의 소리(三國遺事 5卷, 孝善偏, 大城孝二世父母條正)가 기록되어 있다. 동학의 창시자 최수운은 동경대전에 자신의 깊은 종교적 체험을 “온 몸이 마구 떨리면서 밖으로는 내 기운이 놀라운 기운과 맞닿게 되고 안에는 신기한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있었다”고 전한다(최동희, 1994). 그리고 강신무는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맹렬하게 춤을 추다 신이 내리면 자신에게 어떤 신이 내렸는지 그 신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의 이름을 옳게 대면 그 다음부터 신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공수를 내릴 수 있게 된다(김태곤, 1981). 이를 가리켜 말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문은 곧 신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다.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의 깊은 무의식에서 오는 내면의 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담 속에 나오는 신령한 목소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Stith Thompson의 Motif index에서 그 주제를 살펴보면 신의 목소리(A139.5)나 신성한 기적을 말하는 목소리(D849.7), 보물을 지키는 악령의 소리(N576.1), 예언의 소리(F1041.8.8), 마력을 지닌 목소리(D1921), 죽음이나 탄생을 예고하는 소리(M348), 죄인을 지목하거나 응징하는 소리(N278, F442.1) 등 목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분류되어 있으며 동서양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Thompson, 1975).

구지봉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다. 심리학적

으로 보면 거역할 수 없는 힘(mana)을 지닌 내오의 소리로 우리의 전체 정신을 관할하는 내적인 중심인 자기로부터 오는 원형의 소리이다. 음은 무의식이 선형적인(apriory)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고 이를 절대지(絕對知, absolute knowledge)라 불렀다. 무의식은 시공을 초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령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꿈을 꾸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경우가 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의식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그 시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예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감관기관으로도 매개되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무의식적인 앞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다. 음은 이를 무의식의 초월기능을 드러내는 비인과적 동시성(acausal synchronicity) 현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Jung, 1957). 구지봉에서 앞날의 일을 알리고 행동지침을 가르친 목소리는 무의식의 초월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는데 흥미롭게도 목소리의 가르침은 땅을 파헤치며 가히 위협적이기까지 한 노래와 춤으로 신을 맞이하라는 것이다.

노래와 춤

구지가에 대한 고전문학 분야의 견해를 요약하면 구지가를 서사시, 혹은 위압적인 명령의 기도인 呪願歌, 신에 대한 무술적인 찬가, 혹은 원시 농경시대의 舞蹈歌(박지홍, 1997), 영신제 중 희생무용에서 가창되었던 노래 등 대체로 무가(巫歌)의 성질을 띄고 있는 노래로 본다(김열규, 1966; 정상균, 1984). 무가는 인간의 일상언어가 아니라 신령과 통하는 말의 영이며(言靈), 때로 위압적인 축수를 담기도 한다.

가령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가다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하늘을 향해 탄식해 하늘로 하여금 물고기와 자라로 다리를 놓도록 했던 경우나 위협적인 노래(海歌)를 불러 수로부인을 찾은 경우가 그 예이다. 그밖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많은 향가들이 무가와 같은 주술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두 개의 해가 뜬 괴변을 없앤 월명사의 도술가나 왜병을 물리친 읍천사의 해성가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춤은 종교나 제천의식에서 액귀를 물리치고 풍요를 기원하는 수단이며, 곳에서 춤은 신을 칭해 들어 인간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수단이다. 상고시대의 제천의식과 삼국시대의 집단가무, 궁중연회 등에서 춤은 천신과 교감을 나타내고, 제례의식의 文舞와 武舞는 종묘에서 조상의 넋을 초대하고 천신의 강림을 유도하는 것으로 믿어졌다(김기문, 1992). 하늘을 감화시키고 잡귀를 물리치는 노래와 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힘, 곧 무의식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축제의 필수 요소인 춤과 노래가 강조된 대표적인 예가 디오니소스 축제일 것이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춤과 노래와 성과 술에 동반된 열정과 무질서, 자유로운 본능의 발산과 이에 뒤따르는 생산성과 황홀경으로 묘사할 수 있다. 축제에서 사람들은 한껏 취해서 질서와 자제력을 지닌 이성적인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망아경에 이른다. 이는 말 그대로 자아의 죽음이자 자아로부터의 해방이며, 묻혀있던 것들의 새로운 탄생이다. 따라서 이 체험은 사람과 자연이, 의식과 무의식이 한 점에서 만나는 강렬한 융합의 체험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의식이 탄생한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체험으로 묘사되며, 정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리비도의 대변환을 의미한다. 그 뒤에는

의식적인 태도의 변화가 뒤따르는데 노래와 춤은 이 과정을 돕는 수단이다. 또한 원시제에서 미개인들이 행하던 춤은 곧 그들의 행위이기도 했다. 원시인들은 비를 원할 때 비춤을 추고 사냥을 나갈 때는 곰춤을 추었다(오병남 등, 1996; Frazer, 1978). 음은 와찬디족의 봄 축제를 예로 들어 의례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리비도의 변환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와찬디족 남자들은 봄이 되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돌레를 덩불로 장식한 다음 그 가운데로 창을 던지면서 춤을 추는 의례를 행한다. 그것은 남녀의 성적인 결합행위를 모방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자연스러운 생식 본능을 그와 유사한 상징물과 행위를 통해 생산성으로 연결시키는 의례로 리비도의 물길을 터주는 통로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춤과 노래는 대지를 수태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땅은 기대의 대상이 되고 정신적 가치를 획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은 대지로 주의를 기울이고 농사지를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Jung, 1952).

이처럼 강렬한 정동을 수반하는 의례들은 무의식적인 정신 에너지를 삶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경로가 된다.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은 내인 에너지의 변환을 강렬한 정동과 함께 체험한다. 가락국의 백성들도 신군의 강림을 강력히 노래하였고 노래는 신을 감화시켜서 백성들은 소망을 성취한다. 흠을 파헤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 왕을 맞아 환희용약 하리라는 가락국기의 내용은 무의식을 파헤쳐 원형적인 에너지를 의식적인 내용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환희용약이라는 강렬한 정동체험이 수반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무의식과의 소통에는 정동

성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또한 무의식을 의식에 통합하는 과정에는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무의식에 대한 지적인 통찰의 한계성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구지가(龜旨歌)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놓아라)
 若不現也 (안 내밀면)
 燔灼而喫也 (구워 먹겠다)

남근을 가리켜 거북의 머리라는 뜻의 귀두(Phallus)라고 부르듯이 거북의 머리는 남근 형상이다. 구지가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거북의 머리를 곧이곧대로 남성 성기의 상징으로 보고, 구지가를 머리를 내밀지 못하는 거북, 즉 남성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대를 교체하는 의식의 일환으로 보았다(이규동1962; 이 병도, 1962; 정상균, 1984). 그러나 거북의 머리를 단순히 남근 상징으로서만 본다면 거북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상징성을 간과하게 된다. 거북의 머리는 남근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평평한 몸은 대지의 표상이다. 이러한 까닭에 거북은 남근과 어머니 대지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닌 양성적인 상징동물로 흔히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phallus는 빛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빛은 어둠, 곧 무의식의 성질과 대비되는 특성으로 거북의 머리는 의식성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북은 유교, 불교, 도교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토착적인 종교적 관념을 나타내는 동물이었다. 사미승 묘정이 황룡사 우물가에서 거북에게 구슬을 얻어 왕의 총

애를 받은 이야기나 네 방위 중 북쪽을 담당하는 도교의 호위신 현무 등은 거북이 토착적인 종교 관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초공본풀이, 바리공주 신화에서는 거북이 용왕의 사자로 인간의 바닷길을 돕는 등 민간신화에서 거북은 종종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현용준, 1996), 가락국기에서도 거북은 신성한 군주의 출현을 촉구하는 백성들의 뜻과 신의 은총을 희생으로써 구현하는 매개역할을 한다. 서양 신화에서 거북은 제우스신의 사자로 신과 인간 사이의 전령사였던 헤르메스와 관련되며 태양신의 명에 따라 대지를 만든 북아메리카 이러쿼이 인디언 신화의 거북 역시 신의 사자로서의 기능을 표상하는 동물이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수륙양생 동물인 거북은 신의 사자로서 천상과 지상,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표상이기도 하다.

신화나 민담에서 사유의 내용은 은유적인 상징적 대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령 세상이 거인 반고의 몸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중국의 창세신화나 최초의 존재인 푸루샤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리그베다의 내용 그리고 거인 이미르(Ymir)의 살과 피와 뼈와 털과 해골로부터 땅과 바다, 산, 나무와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북유럽 신화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거인들은 모두 세상이나 사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질료라는 의미가 있다. 중세 연금술에서 거북은 혼돈 상태에 있는 우주적인 질료의 상징이다. 연금술에서 혼돈상태는 아직 영적인 속성을 얻지 못한 모든 질료의 혼합 상태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며 물질적인 존재의 상징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는 모든 창조성의 모태가 되는 우주적 질료, 즉 무의식 그 자체를 나타내는 태모(太胎, Great Mother)

원형상에 해당된다(Jung, 1944). 이러한 맥락에서 구지가에서 땅속에 묻힌 거북의 머리는 곧 수로왕으로 화할 무의식적인 질료의 영적인 측면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북이 어느 한 두 가지 분명한 의미의 표상으로 귀결될 수 없는 다양한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지봉은 아직 싹트지 않은 수많은 씨앗을 속에 묻고 있는 대지처럼 의식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무의식의 질료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땅속에 묻힌 거북은 이제 머리를 내놓아야 한다(龜何龜何 首其現也). 이것은 어두운 무의식의 대지를 파헤쳐 phallus, 빛과 같은 의식성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의식화 작업에 해당한다. 구지가의 첫 소절은 거북의 머리를 내밀게 하는 기원이며 그것은 빛(phallus)으로 상징화된 수로왕의 출현이다. 머리를 내밀지 못하면 구워먹겠다는 내용(若不現也 燔灼而喫也)은 ‘왕의 살해’ 모티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왕이나 사제에게 신성성이 투사되었던 시대에 왕이 늙거나 쇠약해져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흉년이 들거나 가축이 번식하지 못하고 질병이 번창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짐이 보이면 언제나 왕을 살해하여 교체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풍속은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Frazer, 1978).

살해 위협이 담긴 구지가의 내용과 왕의 살해 풍습이 지닌 의미는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구질서와 낡은 통치원리를 대변하는 늙은 왕을 새로운 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집단 전체의 의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낡은 자아의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미가 있다. 머리를 내놓지 못하는 거북은

living phallus, 즉 깨어있는 의식성을 갖추지 못한 무의식의 질료일 뿐이다. 폭포가 그 자체로서는 아름답지만 댐이 건설되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용성에 제한이 따르듯이 의식화되지 않은 채 무의식에 머물러 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의식생활에 활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의식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전체 정신은 변화를 추구하며 신화나 의례의 형식에 담길 수 있는 여러 심상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다. 가락국기에서 백성들의 간절한 기원으로 표현되었던 왕의 강림은 여러 부족국가가 단일 국가로 통합되려는 시점에서 불교라는 외래문명의 도래로 인해 백성들에게 커다란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던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이와 흡사한 고대 의례가 있다. 희랍의 디오니소스 축제는 먼저 사제가 모든 올림포스 신들에게 神酒를 권하고, 아테네 시민들을 춤잔치에 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민들이 모인 곳에 땅에 아이비 덩굴로 묶여 있는 브로미오스(디오니소스)가 등장한다. 그는 대지의 여신 세멜레의 아들이다. 시민들은 브로미오스에게 ‘자줏빛 시간의 방이 열리면 불멸의 대지를 버리고 아테네 시민들의 머리 한 가운데 와 있기를’ 청하는 노래를 부른다. 춤판은 피리소리와 노래 소리 가운데 “왕관을 쓴 세멜레”를 부르는 소리로 요란한데 시민들은 브로미오스에게 땅(어머니 대지)에서 일어나 화관을 쓰라고 외친다. 그가 대지에 묶여 있는 그는 아직 세멜레의 일부이다. 땅에서 일어나 화관을 쓴 세멜레가 비로소 브로미오스이다(Campbell, 1964). 브로미오스는 땅에서 독립한 자이다. 그는 머리를 내민 거북, 수로왕이며, 아들을 묶어두고 있는 대지의 여신 세멜레는 거북의 머리를 품고 있는 구지봉에 상응하

는 표상이다.

시대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이처럼 신화의 틀이 일치하는 것은 신화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 층인 집단무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민족의복제의 죽음과 겨울과 어둠을 실어내는 축제로 여기에는 희생의례가 포함되어 있다. 구지가 역시 춤을 동반한 죽음의 노래인 동시에 새로운 탄생의 노래로 변환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수로왕 탄생 신화는 지모신과 그 아들의 탄생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어머니 대지로 상징되는 지하계의 무의식으로부터 빛이자 아들로 상징되는 의식을 일깨워내는 것이다. 구지봉에 묻혀있는 거북의 머리는 그 존재는 아들이지만 근원적인 어머니인 대지에 묻혀있다. 그는 영적인 속성을 대변하는 하늘과 물질과 육체를 상징하는 대지의 특징을 지닌 전체성의 표상이지만 아직 무의식에 머물러 있기에 의식화되어야 한다.

왕의 하강

자주빛 줄

구지가를 부르자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는 주제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의 동아줄, 나무꾼과 선녀의 두레박, 천지왕 본풀이의 박 넝쿨, 단군신화의 신단수 그리고 기독교 문명에서 야곱의 사다리와 세계 각처의 샤만 입무식에서 볼 수 있는 밧줄이나 나무 오르기 등이 그 예이다(Eliade, 1964).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이나 사다리는 신들이 사는 천계와 인간이 사는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신

성한 힘과의 연결을 상징한다. 그것은 천상로의 상승과 지상으로의 하강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세계와 의식 세계간의 소통 경로라는 의미가 있다.

수로왕은 자주색 줄에 달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또한 그는 구지봉을 파헤침으로서 등장하여 하늘로부터의 하강과 땅에서 용출이라는 복합적인 출생 형태를 취하면서 하늘과 땅의 조화를 함축하고 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대극이라는 점에서 수로왕은 대극적인 두 정신적 요소의 합일의 산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붉은 색과 푸른색의 혼합인 자주색으로 상징화되었다. 자주색은 왕권과 위엄을 상징하는 색인 동시에 신성함과 깊은 수난의 색이다(Riedel, 1992). 우리 민족에게도 자주색은 신라시대 이래 가장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색으로 대궐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색이었다(조용진, 1992). 이처럼 자주색은 신성한 색으로서 핵심적인 변환의 상징이며 하강과 용출이라는 이중적인 수로왕의 출생방식과 더불어 신화의 태동기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통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금 합 속의 알

이제 황금 합 속의 알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상이 알로부터 창조되었다거나 한 민족의 시조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모티프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다. 우파니샤드에 보면 스스로 잉태하고 탄생한 세계의 창조주 황금 알이 있고, 인도신화에는 우주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한 모신(母神) 암마바루가 젓의 바다에 낳은 세 개의 알에서 브라마, 비시누, 시바의 세 신이 탄생하였다. 중국의 창세신화에도 우주창생의 모태를 상징하는 반고의 알이 등

장한다. 티베트의 조상 역시 우주 알에서 태어났고, 이집트 신화에는 우주 알을 품고 있는 뱀뱀이 있으며, 그리스 신화에도 뱀이 나선형으로 감고 있는 우주의 알이 등장한다(정석원, 1997; Campbell, 1962).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는 독수리가 물고 온 알에서 종족 최초의 사면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알은 우주의 알로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알이 지닌 또 다른 의미는 재생(rebirth)의 의미이다. 알에서 부화한 존재는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갖추게 되는데, 신화적인 사고에서는 육체의 탄생이 아니라 어둠의 혼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정신적인 재생을 상징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다 성숙한 존재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알은 풍요와 태양의 상징이기도 하다. 알은 그 자체가 태양을 상징하지만 황금과 관련된 알은 태양과 관련된 속성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고대인들에게 귀하고 완전한 것으로 인식되던 황금은 신화에서 태양이나 왕, 신을 상징하며 건국 신화에 나타나는 황금은 건국 시조를 태양의 자손이라는 신성성과 연결시키는 상징물들이다(Eliade, 1964).

우리에게도 수로왕을 비롯해서 동명왕, 박혁거세, 탈해왕과 같이 알에서 태어난 시조가 있는데 모두 건국신화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그 모태인 알은 우주창조의 근원이라기보다 새로워짐(renewal)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재생의 알이다. 그 중 김알지가 태어난 황금 껍데와 금합 속에 든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 신화는 태양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신화로서 왕권의 신성함과 절대성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라틴어로 금을 의미하는 aurum 역시 빛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거북의 머리로 불리는 phallus와 같은 의미이며, 구지기에 나오는 거북의 머리와 하늘에서 강림한 황금 합 속의 알이 동일한 심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황금 합 속의 알은 빛과 태양의 속성을 지닌 황금이 남성적인 양의 원리인 로고스와 지성, 의식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의식성의 상징이며 기존의 의식체계가 강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

백성들이 땅을 파헤치며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왕이 내려온다. 그의 탄생은 천지 조응의 산물이다. 천신과 지모신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수로왕은 정신의 초월기능(transcendental function)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분석심리학에서 초월기능은 무의식적인 내용이 의식에 수용됨으로써 기존의 자아의식을 넘어 제 3의 관점을 지닌 새로운 의식성을 획득하게 됨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무의식적인 내용물을 의식에 동화하는 과정은 의식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결국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중세 연금술서 현자의 장미원(Rosarium Philosophorum)에 보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질인 황금을 얻는 과정이 열 두 단계로 묘사되어 있다. 그 중 왕과 왕비로 묘사되어 있는 두 대극이 결합되고, 가열에 의해 변화되어 원래의 두 대극은 죽음으로 사라지고 수증기처럼 오묘한 심혼이 어린아이의 형태로 빠져 나오는 ‘혼의 상승’ 단계가 있다. 이것은 대극적인 두 입장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기존의 대극이 죽음으로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새로운 입장이 탄생하는 과정이

다. 연금술은 최고의 물질을 얻기 위한 작업이었고 무의식에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작업이었으며, 물질로부터 해방된 영혼은 제 3의 물질로서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뜻하는 금으로 상징화되었다. 금은 연금술의 원물질(prima materia)로 묘사된 무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이고, 구지봉에 강림한 수로왕이며, 땅에서 일어난 브로미오스이자 빛이며 새롭게 획득된 의식성과 같은 의미이다.

열이틀이 지난 뒤 알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그 용모나 행실이 범상치 않다. 그것은 아이들이 신이한 존재로서 무의식의 초월적인 특성을 몸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그중 출중한 인물이 대가락국의 시조 수로 왕이었고 나머지 다섯 동자는 각각 다섯 가락국의 시조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는 12일의 시간이 필요했다. 12라는 숫자는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동시에 바퀴나 원, 시계의 열 두 시침, 황도 12궁처럼 전체성과 영원을 의미한다(Cirlor, 1981). 최고의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던 연금술사들의 심리적인 욕구가 최고의 물질인 금을 만드는 작업과정에 투사되었던 연금술 역시 열 두 작업 단계로 나뉘어 현자의 나무(philosophical tree)에 표상되어 있다(Jung, 1944). 여기서 열둘은 최고의 물질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로왕이 지닌 온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 수로왕이 탄생하기까지의 12일은 지상에 하강했으나 아직은 알속에 머물러 있는 어둠의 과정으로 연금술에서 ‘정화 및 혼의 귀환과 재생’ 단계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연금술에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정화된 다음 이슬의 형태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고, 왕과 왕비의 육신은 자용

동체의 한 인물로 되살아나 상반되는 두 대극이 하나로 융합되었음을 나타낸다. 난생신화는 알로 태어난 뒤 다시 한 번 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거듭된 정신의 변환(transformation)을 함축하며 재생의 의미가 더 부각된다. 알속에 머무는 상태는 의식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거치는 정신적인 암흑기, 즉 새로운 문명의 도입에 뒤따르는 전환기의 혼란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논의 및 제언

신화란 의식 이전의 심성이 그 자체를 드러내며 우리 정신의 근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화를 분석하는 목적은 인간 정신의 심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이다. 집단무의식에서 생긴 원형적인 심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와 그 변화과정을 의식에 통합시켜 나갈 수 있다. 무의식을 의식에 통합함으로써 의식의 지평은 넓어진다. 또한 단절되어 있던 무의식과 연결을 되찾는 것은 정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전체성의 회복은 분석심리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자기실현이다. 따라서 무의식에 대한 통찰은 내적인 풍요와 영혼의 치유 그리고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며, 신화분석은 그 한 가지 방법이다.

수로왕 신화는 개국시조신화로 여러 씨족들이 연합국가의 형태로 있다가 통합된 국가를 만들던 때이며,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수로왕 신화는 집단구성원 전체가 새로운 문명과 체제를 맞아 커다란 가치관의 혼란을 겪던 시점의 이야기로서 보다 강력한 새로운 의식성을 갖추어 나

가는 정신적 변환과정에 대한 기술로 볼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은 인간의 간절한 기원도 있지만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늘에서 직접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식적인 자아의 태도와 구분되는 신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또 다른 정신요소를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음이 객체 정신(object psyche)이라고 부른 내 안의 타자, 또는 전체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 정신 그 자체가기도한 자기원형(Self archetype)은 신이나 현자, 구세주 그 밖에 원이나 4위, 만달라 등과 같은 전체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대상으로 형상화된다. 동양 사상으로 보면 자기는 본성, 자연, 도, 불교의 진여(眞如)와 가까운 개념이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궁극적인 정신적 실체는 의식의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이다. 자기는 의식의 일방성을 지양함으로써 정신의 균형을 꾀하고자 한다. 수로왕의 강림을 알리는 형체 없는 목소리는 자기원형의 목소리로 기존의 의식적인 태도에 수로왕으로 대변되는 새롭고 강력한 통치원리가 등장할 것임을 알린다. 백성들은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여 왕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왕을 맞이하는 태도와 그 결과이다. 개인 내면의 정신현상으로 미루어 보자면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내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기성찰의 태도와 그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에 상응할 것이다. 의식이 무의식에서 지향하는 바를 수용할 때 우리는 수로왕의 탄생과 같은 새로운 힘과 의식의 확장을 경험한다.

수로왕의 탄생은 원형적인 체험이다. 원형적인 체험은 보통 개인이 충격적인 외부 사건과 맞닥뜨리거나 집단무의식이 강한 에너지를 갖

게 되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뒤따르며, 동일한 상황에 놓인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체험되기도 한다. 원형적인 체험은 의식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변화가 요구되는 외부 상황이 기존의 가치관에 의해 억압되었던 요소들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원형적인 요소들이 새롭게 배열(archetypal constellation)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신적인 자세를 바꾸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Jung, 1928).

특기할만한 것은 통상 단군처럼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제주 삼성신화나 당신 본풀이처럼 시조가 땅에서 솟아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도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현용준, 1996) 수로왕은 하강과 용출 방식을 취하는 난생이라는 복잡한 출생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수로의 탄생을 알리는 목소리는 왕이 땅속에 있는 것처럼 시사하지만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이 언뜻 모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강과 용출이라는 복합적인 방식은 천지교응을 함축하며, 하늘과 땅이라는 음양 대극은 수로왕의 탄생지점에서 수렴한다. 그러므로 수로왕은 땅에서 용출하거나 하늘로부터 하강하거나 외지에서 도래한 시조보다 더 강력하고 신성하다는 점이 부각되는 동시에 신화가 형성되던 시대상황이 그만큼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해야 했던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불교라는 외래문명의 도래가 큰 몫을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은 정신의 재생으로서 무의식에 잠들어 있는 정신적 요소가 의식에서 기능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 정신적 에너지의 변화이다. 이 과정에는 강력한 정동체험이 수반된다. 흔히 춤이나 주문과 같은 노래 형태로 표현되는 정동성은 본능적인 삶의 에너지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

키는 도구가 된다. 구지가와 땅을 파헤치며 추는 춤은 무의식의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의식의 내용물을 의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정동적인 체험과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됨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해 나갈 때 머리로만 깨닫는 지적인 통찰의 한계성을 보여주며,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감정적인 체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임상적인 함의가 큰 대목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추리면 당시 집단 구성원들은 미미하게 분화된 의식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사회 전체를 통솔해 나갈만한 지배적인 가치나 의식적인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국가의 부상과 불교의 유입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통치원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원형은 목소리로서 의식적인 태도변화를 예고하고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늘을 향해 노래 부르고 땅을 파헤치며 춤을 추는 것이다. 그것은 수로왕을 얻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관여, 즉 이질적인 것의 결합으로서 토착문명과 불교, 여러 부족국가들이 지니고 있던 상이한 가치관의 통합을 의미하며 수로왕이 붉은 색과 푸른색의 혼합인 자주색 줄에 달려 탄생하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상반적인 입장이 하나로 통합되면 수로왕이라는 제 3의 관점, 즉 의식에서 새로운 지배 원리를 갖추게 되고 여기에는 극적인 감정체험이 뒤따른다. 마치 종교적인 체험 뒤에 지극한 감동 속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전의 자아나 지배적인 가치관은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의식, 새로운 가치관이 개인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동일한 원

리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때로 위협적이라만큼 적극적으로 무의식에 대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깨우침을 통해 의식을 확장해 나가려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노력과 감정이 실린 체험이 그 과정을 도울 수 있다.

지금까지 수로왕 탄생신화를 정신 내면의 변환 과정에 대한 상징적인 기술로 가정하고 다양한 원형상들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미흡하게나마 확충, 해석해 보았다. 상징은 무의식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상징에 대한 이해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능력과 직결된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자각함으로써 의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은 전체 정신을 통합해 나가는 길인 동시에 자기실현이다. 신화나 민담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전해 내려오는 인간정신의 소산으로서 의식에 의해 가미되지 않은 원초적인 정신현상들이 잘 나타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신의 심층적인 요소들의 의미, 배열과 구조 그리고 정신의 변환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자각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심성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시도로서 탐색적인 성격이 짙다. 그 이유는 심층적인 인간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 역사, 전통과 의례 그리고 신화에 대한 지식 등 폭 넓은 식견이 필요하지만 연구자가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아 부분적인 이해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접분야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는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인접 학문분야와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제한점은 수로왕 신화와 다른 한국의 신화를 비교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로왕 신화는 고구려 동명왕 신화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내용면에서는 육촌장 위로 강림한 혁거세 신화와 유사하다. 반면에 하늘과 땅이 관여하여 알로 탄생하는 복잡한 출생방식은 여타 한국의 신화와 대비되는 수로왕 신화의 특징적인 면으로서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심성이나 사회 상황이 다른 신화를 배태한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추정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일 것이나 추후 과제로 남았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합리적인 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무의식을 전제로 하는 심층심리학이 심리학의 주요 흐름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대 심리학이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에 많은 비중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심리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심혼을 지닌 존재일진대 인간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간심성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다. 본 연구가 신화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인간 정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안내자로서, 특히 한국인의 심층심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화나 민담의 이해는 과학문명으로 포장되어 있는 인간 정신의 심층을 통찰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비일상적인 원형적인 체험-그것이 종교적인 내용이든, 꿈이든, 예술이든, 병적인 증상이든 간에-을 의식에서 깨닫고 수

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것은 의식의 확장이자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치유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는 임상적인 유용성과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연구의 활성화는 ‘심혼을 지닌 심리학’을 키워나가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문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pp. 575-578. 동아출판사.
- 김열규 (1966). 가락국기고. 부산대 국어국문학지 3집, pp. 7-16.
- 김열규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pp. 461-463. 동아출판사.
- 김열규 (1998). 한국의 신화, pp. 129-134. 일조각.
- 김윤수 역 (1993). 호모 루덴스, pp. 207-221. 까치글방.
- 김태곤 (1981). 한국무속연구, 한국무속총서 IV pp.77-78, 314-316, 359-360. 집문당.
- 김현선 (1998). 가락국기의 신화학적 연구, 경기대학교 인문논집 제 6호, pp. 37-59.
- 김화경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pp. 94-98. 동아출판사.
- 박지홍 (1997). 구지가 연구, 동아대 국어국문학 16호, pp. 7-17.
- 박현순 (2003). 목소리 원형, 미발표 한국음악연구원 세미나 논문.
- 박현순, 이창인 역 (2004). 율학파의 꿈 해석, pp. 83-84. 학지사.
- 오병남, 김현희 역 (1996). 고대예술과 제의. 예

- 전사.
- 이기백, 이기동 (1982). 한국사 강좌, 고대편. 일조각
- 이규동(1970). 김수로왕 탄생신화 및 영신가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 9, No.2, pp.123-135.
- 이병도 (1962). 수로왕고, 역사학보 17, 18호.
- 이부영 (1962). 소위 강신적 입무과정의 정신의학적 연구 - 한국무속 관계 자료에 의거한. 이부영교수 논문집 제 1권 #5, vol. 1. pp. 32-57.
-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 pp. 313-323. 일조각.
- 이부영 (1970). 한국 민간의 정신병관과 그 치료 (I) - 무속사회의 정신병관. 신경정신의학, vol. 19, pp.35-45.
- 이유경외 공저 (2001).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 이은봉 역 (1998).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재호 역 (2000). 삼국유사 1, 2권. 솔 출판사.
- 정상균 (1984). 한국고대시문학사 연구, pp. 11-47. 한신문화사.
- 정석원 역 (1997). 중국의 고대신화. 문예출판사.
- 조용진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p. 597. 동아출판사.
- 천관우 (1977). 복원가야사. 문학과 지성 제 28, 29권.
- 최동희 (1994). 증산사상에서의 상제와 동학의 하느님. 증산사상연구 제 20집, pp. 411-432.
- 秋葉隆 (1937). 조선무가 연구 I. 조선총독부.
- 현용준 (1996). 제주도 신화. pp.36-63.
- 한국민속대사전 (1998). 민중서관, p.432.
- Boa, F. (1994). *The way of the dream- conversations on Jungian dream interpretation with M-L von Franz*, Shambala.
- Campbell, J. (1962). *The masks of god, vol. II: Oriental mythology*, A.M. Health& Co. Ltd.
- Campbell, J. (1964). *The masks of god, vol. III: Occidental mythology*, A.M. Health& Co. Ltd.
- Cirlot, J. E. (1981). *A dictionary of symbols*, Routledge & Kegan Paul. p. 153, pp. 234-237
- Eliade, M. (1964). *Schamanism, 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Bollingen Princeton university of press.
- Frazer J. G. (1978). *The golden bough*. George Rainbird Ltd.
- Jung, C. G. (1934). Archetype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vol. 9-1*.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1938).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mother archetype.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vol. 9-1*.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1952). Symbols of transformation,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5*.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1928). On psychic energy in The structure & dynamics of the psyche.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8*.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1940). The psychology of child archetype.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9-1*.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1944). Psychology & alchemy.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12*.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1952). Two kinds of thinking In Symbols of transformation.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5*.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1957). The Transcendent function. In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p. 67-91.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vol. 8. Routledge & Kegan Paul
- Jung, C. G. & Kerenyi, C. (1978). Essays on a science of mythology, *Bollingen series XX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edel. E. (1992). *Maltherapie*, Kreuz Verlag.
- Thompson, S. (1975). *Motif index of folk-litera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 von Franz, M. L. (1970). *Interpretation of Fairytales*, Spring Publications, NY
- von Franz, M. L. (1970). *Time - Rhythm & Repose*, Thames & Hudson
- 1 차원고접수 : 2005. 4. 11.
수정원고접수 : 2005. 6. 10.
최종게재결정 : 2005. 6. 12.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Birth-Myth of King Suro - from the viewpoint of analytical psychology

Hyun-Soon Park

Student Counseling Center,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birth-myth of King Suro. It is based on the premise of Analytical Psychology that a myth is the product of human psyche and the projection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In this study, mythologem, the key motif in myth, and the development of mythological contents were regarded to correspond to archetypal images and libidinal transformation processes. Symbolic meanings of myth were explored through the hermeneutic method with amplification of symbols and comparisons among similar stories. And meanings of the mythical symbols were interpreted as an intra-psyche phenomena. The purpose of myth analysis in Analytical Psycholog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a that occur inside of human psyche. To comprehend mythical symbols could be one way to get insights into the abyssal unconsciousness, which is called "Object Psyche, i.e. the Other in me"; therefore we can get help in restoring the psychic totality and equilibrium through walking out of one-sidedness of the consciou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rther suggestions were made.

Key words : collective unconsciousness, mythologem, archetype, libidinal transformation.